

전북 농촌유학생 130명 이상 유치

도교육청, 2024년도 1차 모집서 109명 확보... 학생 큰 호응 속 추가 모집 나서 유학경비 직접 지원서 프로그램·거주시설 등 간접 지원 강화로 패러다임 변화

작은학교를 살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전북 농촌유학이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속에 추가 모집에 나섰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전북 지역의 농촌유학은 2023년은 84명이었으며, 2024년은 1차 모집에서 이미 109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거주시설 확보 등을 통해 올해 130명 이상의 전북 농촌유학생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

으로 유학경비 직접 지원에서 프로그램 및 거주시설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 농촌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보다 다각도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모집 시기를 연 1회에서 학기별로 변경하고, 예비유학생 제도를 도입해 모집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전학온 학생도 다음 학기부터 농촌유학생으로 인정해 유학 경비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을 통해 작은 학교를 지키면서 농촌마을 소멸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생태체험 교류학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사전 체험이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체험 학교와 지역, 그리고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을 통해 작은 학교를 지키면서 농촌마을 소멸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면서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거주시설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생 추가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생 연장 인원은 서울 43명, 서울 외 8명 등 총 51명이고, 올해 1차 모집인원은 서울 30명, 서울 외 28명 등 모두 58명이다. 도내 참여학교로는 6개 시군, 10개 학교에서 9개 시군, 15개 학교로 지난해 보다 5개 학교가 증가했다.

/장은성 기자

축 종합문예지 '표현', 신인문학상 당선 정효순시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인문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정효순 시가 시인으로 등단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해양수련원, 매주 수요일 마다 참여 주민 종합문예지 신인문학상 수상 등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원장 박영석)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복지 증진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문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정효순씨가 종합문예지 '표현' 겨울호에 신인문학상을 수상, 시인으로 등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학생해양수련원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인문학교실(유유자자 遊儒自作)은 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누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감상과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문화적 영감을

을 나눌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여건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지역사회의 상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시 창작활동과 정기적 시집 발간 및 한국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현재 시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박영석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은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JB-지구촌 지원단' 운영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직원·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문화다양성 교육 등 담당

전북도교육청은 '2024 JB-지구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JB-지구촌 지원단은 개별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교육활동 지도안,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교원은 민주시민교육과로, 외부 지원자는 이메일(tw12602@jedu.kr)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및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이력 있는 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다문화사립학교) 운영 유경험자 △교육청 주관 다문화교육 관련 지원단, 파견 프로그램, 연구회, 사제동행 등에 참여

한 자 △교수, 교원, 다문화교육 관련 유망기관 근무 이력 소지자 △문화다양성교육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 △해당 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30여 명 규모로 지원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단은 4월부터 신청 학교로 찾아가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이룬, 세계시민교육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제 및 사례, 학교으로서 필요한 문화감수성 함양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평가 4년 연속 우수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노동부·고용정보원 주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15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학생과 지역 청년에게 산업계 연계를 통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지난해 수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둔 우석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진로취업 인프라 서비스 강화 △통합상담 서비스 체계화 △진로 교과목 운영 내실화 △진로취업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천현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의 참가율과 만족도가 높은 것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교내 진로·취업 지원의 허브를 강화하고,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8~12일 5일간 군산부설초 달림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달리기 캠프가 열린 가운데, 참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명산 달리기 코스 완주하고 나니 성취감 느껴"

군산부설초 달림이부 겨울방학 캠프 성료

지난 8~12일 5일간 군산부설초 달림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달리기 캠프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아마추어 마라토니언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과 군산시청 마라톤선수로 등록돼 있는 무녀도초 김우성 선생님의 재능기부로 군산부설초 강당 및 운동장 그리고 월명공원 등지에서 진행됐다.

특히, 2023년 조직된 군산부설초 달림이부는 그동안 매일 아침 달리기,

군산 나포 십자들녘 달리기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통해 실력을 키워왔다.

조직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겨울방학 캠프를 통해 달리기 호흡법, 자세 등 마라톤의 기본 기술들을 습득하고 달리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계주 시합, 팔마산 등반, 월명공원 달리기 등을 통해 달리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집에만 있으면 게임이나 하고 있었을텐데 아침 일찍부터 달리를 하다보니 더 건강해진 기분이고, 특히 월명산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고 나니 성취감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은 "추운 날씨에 마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 달리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겨울을 녹이는 열정을 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끈기와 열정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방통중 내달 2일까지... 방통고는 내달 16일까지 원서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중학교 7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114명 등 총 189명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라중학교에서 운영하던 방송통신중학교는 올해부터 전주덕일중학교로 이전해 운영된다.

전주덕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만 16세 이상인 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

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며,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서접수는 2월 2일까지며, 전주덕일중학교 2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일중학교 교무실(063-249-2600)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와 함께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도 2월 16일까지 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전주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063-283-3050) 또는 행정실(063-285-0213), 전주여자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063-710-558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4 지방공무원 연수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2024년 지방공무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공무원 200여 명 대상 공무원 보수 실무 1기를 시작으로 올해 252개 교육과정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두 7,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이관된 정보와 교육과정은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구. 학습연구회) 확대, 신규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디딤돌을 운영 등 현장맞춤형 자율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병기 원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폭넓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에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작'

전주대, LiFE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컨소시엄 워크숍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 LiFE 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컨소시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작 RE:START-LiFE2.0'이라는 주제로 2023 LiFE 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컨소시엄 유형에 선정된 10개 대학 사업 관계자와 4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2023 LiFE 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컨소시엄 협의회 회장을 맡은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서우성 사무관과 국가평생진흥교육원 이범수 실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후 본격적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훈 부연구위원이 '평생 직업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방향 및 미래 대응 아젠다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최민민 학장이 '대학평생교육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 박창우 학장은 'Why & How LiFE 2.0'이라는 주제로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LiFE 2.0 사업이 대학, 지역, 국가, 개인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를 얘기했다. 주제 발표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정우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기반 고등평생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진 센터장의 "2024년도 사업 안내 및 공동 과제" 발표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다음날인 11일 워크숍에서는 5개 권역의 컨소시엄 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학장/지자체, 교수(교원), 팀장, 직원별로 사업 수행을 위한 그룹 회의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예비 고교생 진학상담실 운영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전북도교육청은 예비 고등학생(중학생)을 위한 '화목(火木)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목한 진학상담실은 오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12시 도교육청 8층 진학정보센터에서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All in One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www.je.go.kr/jro)에서 대입대면·화상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사전 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 상담 기간 동안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에는 고등학교 진학지도 경력 10년 이상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

생들에게 진학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화상상담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화상상담 신청자는 줌(Zoom)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유료선 중등교육과정은 "올해는 고3 중심의 입시에서 벗어나 중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등 진학정보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학교 시기부터 본인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고교학점제 등의 변화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